

지역 문화예술회관 개선방안

- Local Arts Housing으로서 지역 문화예술회관 -

- | | |
|--------------------|----------------|
| 1. 문화예술회관이란 | 3. 문화예술회관 개선방향 |
| 2. 문화예술회관의 현황 및 실태 | 4. 정책제언 |

1. 문화예술회관이란

- 시민 문화향수 촉진 및 문화접근성 해소 차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 (1995년 1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규정)
- 서울시엔 현재 14개 분포
 - 문화예술회관 설치 자치구 :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등
 - ※ 다목적 강당을 중심으로 설치된 「구민회관」은 17개소 분포
- 대부분 공연시설, 전시시설(갤러리), 강의시설, 기타시설(다목적 회의실, 체육시설 등)로 구성
 - 공연시설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여타 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건립됨.

2. 문화예술회관의 현황 및 실태

- 문화예술시설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낮은 가동률
 - 문화예술회관 평균가동률은 60%에 불과함(※ 구민회관은 그보다 낮은 실정임).
 - 그나마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자치구 행사나 민방위 훈련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표 1> 주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구성

명칭	주요시설	부속시설	운영	운영주체
관악문화관	공연장(1,000석) 전시실(70평)	대강의실	생활문화강좌 중심	대관
송파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교향악단 등 전속단체 입주	송파구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750석) 대회의실(75평)	문화강좌실 기획전시실		대관
서대문문화회관	대극장(604석) 소극장(200석) 갤러리(80평)	문화강좌실	연습실(40평) 문화의 집 입주	도시관리공단 산하
강서문화센터	공연장	연습실 비디오감상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구민회관으로 운영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616석) 소공연장(292석)	다목적룸 회의실	연습실, 분장실 노원문화원 입주	전문기획팀 운영
충무아트홀	대극장(809석) 소극장(327석) 갤러리(117평)	체육시설 헬스장 컨벤션	연습실, 분장실 김덕수사물놀이패 입주	중구문화재단 설립·운영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686석) 소공연장(200석)	나루아트센터	연습실, 분장실 문화광장, 체육센터 구립여성합창단 등 전속단체	전문기관 위탁운영

- 전문적 공연이나 전시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한 시설 여건
 - 대부분 시설이 전문적인 예술용으로 건립되기보다는 행사용 건물로 건축되어 있음.
 - 충무아트홀, 나루아트센터 등 전문적 용도로 건립된 최근의 문화예술회관은 활발히 활용되는 편임.
-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비전문적 기관에서 '대관용' 시설로 운영하는 한계
 - 전문가에게 위탁한 사례는 충무아트홀, 나루아트센터 2곳에 불과함.
 - 나머지 시설은 자치구나 기타 행정기관(도시관리공단 등)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콘텐츠 개발이 어렵고, 전문적인 기획이나 시설운영이 불가능함.
- 전문적인 예술단체가 없는 불임시설
 - 대부분 시설은 관변단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콘텐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인 예술단이나 주민 중심의 예술동호회 등이 입주하거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3. 문화예술회관 개선방향

○ 목표

- 문화예술회관 이용활성화
 - 지역 내 활성화된 문화공간으로서 최소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전면 개편
=> (Local) Community Arts Housing
- 지역거점의 주민문화공간으로서 예술공간화
 - 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문화 접근 창구로서 역할
=> (Local) Arts Access Terminal
- 다양한 예술이 창조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문화예술회관
 - 다양한 작가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창작공간으로 활용
=> Creative Arts Studio/Local Creative Center

○ 개선방향

- ◆ 방향 1 : 기능전환 - 대관용 공연시설에서 전문적인 창작 및 교육시설로
 - 시설 내용 및 형태를 대관전용 시설(공연장 중심)에서 창작 및 교육시설로 변경
 - 작은 창작스튜디오와 교육공간으로 변경
 -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과 발표공간(공연 및 전시)으로 활용

※ 모델

- 일본 교토시의 <교토아트센터>
 - 창작스튜디오(Residence Program)를 운영, 세계적인 작가를 유치한 다음 시민대상 교육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
- 일본 가나자와시의 <시민예술촌>
 - 오래 된 창고를 개조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술촌 구성
 - 전문예술작가가 아닌 시민 중 예술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을 입주시켜 창작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 문화예술회관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 ◇

- 서울시 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은 <충무아트홀>, <나루아트센터>, <노원문화예술회관> 세 곳임.
 - 각 시설의 성공적 운영사유는 다음과 같음.
- ▶ 충무아트홀
 - 중구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
 - 위치 상으로 대학로와 국립극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
 - 신당동의 젊은 문화인구를 유입하려 노력
 -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대관중심이 아닌 기획중심으로 극장운영
 -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금난새씨를 영입하여 유라시안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입주시키는 한편,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영입, 주민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힘을 기울임.
- ▶ 나루아트센터
 - 공연에 적합한 최적시설로 미학적으로 건립(주변 지역 내 랜드마크 건축물)
 - 전문적인 공연기획 및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하우스매니저를 두는 등 전문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
 - 매년 6억 원 이상 예산 지원. 전문예술시설로서 명성을 쌓고 있음.
- ▶ 노원문화예술회관
 - 문화의 소외지대인 노원구에 건립
 -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에 집중 투자
 - 점심시간대를 활용한 음악감상회 등으로 편하고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한편, 세계 정상급 예술인을 유치하여 신세대 부부가 갖고 있는 명품선호적 취향에 부응함.
 - 이를 위해 구청 내 전담 공무원 1인을 기획팀장으로 임명
 - 공연장 운영을 위한 전담팀(공연기획팀, 시설기획팀)을 구성하고 단순 대관공연장이 아닌 전문 문화예술시설로 활용
- 성공적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시사점
 - 기획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운영자
 - 문화예술활동 및 콘텐츠 개발에 맞춘 시설의 형태 조정
 - 창작집단 및 예술단 유치, 그에 적합한 시설규모로 건립 및 재편
 - 지역의 요건과 특성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
 - 충무아트홀 - 뮤지컬, 노원예술회관 - 문화교육 프로그램

- ◆ 방향 2 : 역할정립 - 창의적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예술활동의 거점으로 역할
 -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예술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의 거점 시설로서, 다양한 예술가를 영입하여 마을을 예술적으로 바꿔나가는 창조공간·창의공간으로 활용
- ◆ 방향 3 : 특화 - 각 지역별 여건 및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경쟁력 강화
 - 각 지역별 주민구성분포나 지역의 역사성, 여건, 문화예술생태 상에서의 위치를 고려, 문화예술회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 성공사례

- 충무아트홀 : 대학로와 국립극장 사이, 동대문과 신당동에 있다는 점을 고려, 뮤지컬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 아트홀의 대중화에 기여
- 노원문화예술회관 : 문화적 욕구가 높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에 착안, 클래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 특성화

- 특성화 방안(범례)

- ▷ 강북문화예술회관 : 공연창작센터
 - 대학로에서 삼선교로 이어지는 연극의 흐름을 연장하여, 연극단체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극을 통한 문화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
- ▷ 마포문화센터 : 라이브공연장
 - 홍대 지역 클럽음악이 공연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 애니메이션 센터
 - 구로구 내 밀집된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들이 개발한 각종 콘텐츠를 상영하는 장소로 활용
- ▷ 은평문화예술회관 : 문학창작센터
 - 지역 내 많은 문인(언론인 포함)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착안, 문학창작센터로 활용

4. 정책제언

○ 문화예술회관 개선사업 지원

-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기획하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문화예술회관에 우선 지원
- 기능전환 및 특성화 사업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 개선방안 등을 제출토록 한 다음,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사업비의 50~70%를 지원(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 1차년도 1~2개 문화예술회관 개편작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여 전체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회관으로 확대

○ 문화예술회관 기획력 강화를 위한 전담 '큐레이터'(학예사) 영입

- 문화예술회관 개편을 위해서는 예술가를 모으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전문적인 기획자 필요
- 큐레이터(모든 시설 운영 및 기획조정자)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 큐레이터는 <서울문화재단> 내 '문화예술회관팀'을 신설한 후 모집
 - 각 권역별로 1명 씩 모집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인접 문화예술회관 간 교류확대 및 프로그램 공유 추진

○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구성

-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공동으로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구성
- 문화예술회관만 대상으로 하되, 모든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시설개선 및 기획 중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 공동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용 절감
 - 연합회 가입여부에 따른 지원차별화 - 자발적 개선유도

○ 자원봉사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회관 내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 및 기획 제공
 - 현재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는 문화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문화예술회관 내에는 파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추진 필요

나도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7
kuber@sdi.re.kr